공공기관 책임계약평가… 직원 동원 '지적'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 "직원에게 독촉 문자 보내 재정 여력있는 기관 유리"

경기도의회 유호준(민주당, 남양주시 다산 · 양정동) 의원이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가 규모와 재정 여력이 양호한 기관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며 "기관별로 이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가 종료됐던 지난달 7일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돼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겠나" 비판했던 바 있다.

유 의원은 "관계 기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를 위해서 4개 공공기관이 쓴 문자 발송 비용만 1000만원이 넘어간다"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4차례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투표 참여 인증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83명에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데 13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GH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GH임대아파트에 투표 독려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GH에 이어서 2 · 3위를 기록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문자를 발송했는데 기관 평가에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공의 업무 수행 중에 얻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기관들의 경쟁이 과열된 것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에 도민들의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좋지만 도민평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허술했고 그 내용 역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며 이러한 공공기관 평가를 진행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돼야 함에도 고객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공공기관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기관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를 준비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관계자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며 양해를 구한 뒤 "여러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김인창 기자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33㎞ 홍보 행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천시의회 의원들 인천·경기·서울 누벼

인천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지난달 31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열망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인천 애뜰광장에서 외교부 앞까지 33㎞ 홍보 행진을 펼쳤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인천과 경기 · 서울 등을 행진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의지를 알렸다.

인천시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지난달 31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열망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인천 애뜰광장에서 외교부 앞까지 33㎞ 홍보 행진을 펼쳤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에 앞서 가진 이날 행사는 인천시청 애뜰광장 APEC 조형물 앞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2025 APEC INCHEON 이제는 인천입니다'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인천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후 현수막과 홍보깃발을 들고 인천시교육청 앞까지 200m 거리 홍보 행진을 펼쳤다.

거리 행진 이후에는 김대중(미추홀2) · 김용희(연수2) · 문세종(계양4) · 석정규(계양3) · 이봉락(미추홀3) · 이순학(서구5) · 이인교(남동6) · 장성숙(비례) · 정해권(연수1) · 조성환(계양1) · 조현영(연수4) · 한민수(남동5)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인천 · 경기 · 서울을 거쳐 광화문광장까지 총 33㎞를 구간별로 나눠 어떤 의원은 도로로 어떤 의원은 자전거로 또 어떤 의원들은 달리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시의회는 그동안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건의문 전달 하는 등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봉락 의장은 "인천시의원들의 33㎞ 거리 홍보 행진으로 대한민국 관문도시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인 인천이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 도시임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었다"며 "그간 범시민 서명운동과 각계의 릴레이 지지 선언 등으로 인천 유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헌 기자

광주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 개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별 안건 심사 돌입

광주시의회가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9일간 올해 첫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6건을 포함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 5건 등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9일간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2년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로 앞으로 시정 운영방향 전반을 살피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학모 기자

의회 단신

유영일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청년주택 및 행복주택 주차대수 완화 제안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청년주택 주차대수 완화 논의

유영일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청년주택 및 행복주택 주차대수 완화 제안 관련으로 안양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주차대수 완화기준에 대한 경기도 각 시군에서 시행한 곳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주차대수 완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주거 안정 및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오는 18일까지 조례안 등 심사

인천 동구의회 정례회 개최

인천 동구의회는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조경시설 관리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걷고 싶은 길 조성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학생복지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 제 ·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다수 제출됐다.

회기 둘째 날인 4일 기획총무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5일에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외 11건의 안건을 검토한다.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의회는 오는 14일부터 3일간은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에 관한 질문도 실시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동구의회는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선근 기자

군유휴지 협의회 위원장 선임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경기도 군유휴지 민 · 관 · 군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 날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관했다.

군유휴지는 군부대 해체 또는 이전으로 군부대 시설이 사라져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을 말하며 개발 제한 등 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탓에 활용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 늘 활용방안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군유휴지 민 · 관 · 군 협의회'는 군유휴지 업무와 관련된 의원 · 공무원 · 민간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경기도내 군유휴지의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의 협력과 의견조정, 관련된 협의회 각종 안건에 관한 논의를 수행한다.

김인창 기자